



속리산 법주사 사하촌. 원내는 백영한 사내 1구 이상.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④ 속리산 법주사

어림잡아 셈하는 것을 말한다. 답품을 하지 않을 때는 벋대로 주기도 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찰과 사하촌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지는 않았나보다.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집 아랫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스님을 양아버지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동네 소임을 보는 사람에게는 도지 없이 땅을 내 주었지요. 그런데 토지개혁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산은 절이 갖게 했고 땅은 소작인들에게 분할해 주었어. 돈이 없는 소작인들은 매년 추수해서 땅값을 갚았습디다. 당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집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지요. 동네일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절집과 잘 지내왔는데, 땅을 절집에 돌려주자고 주동을 해 포기 작서를 모두 팔지요. 땅을 모두 절집에 돌려주었지만, 소임 땅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땅은 마을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오던 중이었습디다. 그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땅 주인을 찾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 동네 사람들은 동네 땅이라 주장하고, 절집에서 절 땅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싸움이 벌어졌지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습디다.”

사하촌 사람들은 절집 돌아가는 일에도 흔하다. “법주사에 청동 미륵불을 불사할 때 월탄 스님과 각현 스님이 고생을 하셨지요. 금 80kg을 화주해서 청동 미륵불에 금 옷을 입힌 것은 큰 업적이었지요.”

절집 인심은 가뭄에도 솟아나는 샘물인가 보다. 명절 때마다 사하촌에 쌀을 내놓기도 하고 속리축전 행사 때면 산신제 제물을 모두 준비한다. 법주사 단오절 행사에서는 손님들과 사하촌 사람들을 초청해 승가대학과, 한데 어울려 축구시합을 벌이기도 한다. 승부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스님들은 승부근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70년대 사하촌 악동(惡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설 명절이면 차례가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세배 하러 절집으로 향했어. 방마다 돌아다니며 세배를 하면 스님들이 1원 짜리 지폐를 주셨는데 그 재미로 설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절집에 사는 동자승들이 학교에서 인기가 ‘짱’이었습디다. 그 친구들은 불전함을 털어가지고 오는지 학교 올 때면 항상 주머니에서 짱랑거리는 소리가 났으니까요. 누릉지도 가지고 오고...” 친구들에게 군것질 보시를 하면 동자승을 때울리는 백이장님 얼굴이 하회탈처럼 변했다.

사하촌 사람들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절집과 협의 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기도 한다. 요즘 사내리의 현안은 문화재관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정부가 힘을 많이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놀이 공간이 바로 관광자원 이라던 말이 귀속에 박혀 나를 따라왔다.

법주사-김삼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절집 돌아가는 일 흔해

법이 안주할 수 있는 탈속의 절. 법주사는 호서 지방의 제일 승가람으로 신라 진흥왕 14년에 의신 조사가 창건했다. 1500년의 깊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보물을 지니고 있는 법주사. 목탑 팔상전과 화려하고 웅장한 청동미륵대불이 미륵 신앙을 정신적 지주로 삼게 했다. 사하촌 오리 숲길은 역사와 문화의 흔적 속으로 안내를 했다.

내속리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정이품송을 만난다. 조선시대 세조의 행차 때 가지를 들어 올려 길을 내주고 벼슬을 얻었다는 정이품송은 지금도

로 인심을 가득 담아내는 산채 정식과 막걸리로 유명하다. 산사로 오르는 초입에 즐비한 간판들이 식욕을 당겼다. 암산인 속리산과 가장 어울리는 딸 부잣집으로 들어갔다. 연꽃처럼 흰하게 생긴 김봉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다. 한때 법주사에서 월탄 스님을 모시며 근무 했다는 그가 어린 날의 동화를 들려주었다.

“옛날에는 말티고개를 오를 때 버스가 힘이 없으면 사람이 뒤에서 밀고 올랐습디다. 원래 사하촌 자연 마을은 사내골, 청주나들이, 새터말, 민판

요식업 하는 집만 70여 가구, 옛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쌀 주고 주민 초청해 축구시합도...절집 인심 풍성 세배하러 절가던 아이들, ‘군것질 보시’ 동자 생각에 웃음 절로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내속리면에 100m 폭설이 왔을 때 한 쪽 가지가 부러졌다. 팔을 잃은 나무를 보며 철저히 못한 문화재 관리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힘들다 내색 한마디 하지 않은 나무인데 말이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소백산맥 줄기를 따라 거대한 산 무리에 발길을 들이므로 속세와는 멀어진다 해서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크고 높은 봉우리들이 서로 어깨를 내어주며 만들어내는 겨울 산 풍경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속리산은 맑은 공기와 물이 자랑이러지만 덤은

몰이였지요. 관광지 환경 개선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식업 가구만 해도 70가구 인데 옛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디다.”

꽃 먹고 살던 시절, 절 밑에 가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하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백영한 사내1구 이상님 때도 경남 거창에 살다 헤어진 아내 일 다니던 할아버지를 따라 이곳으로 이주해 동지를 틀었다. 절집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공사나 신판일로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법주사는 사하촌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도지를 받아서 살림을 했다. 주로 콩과 쌀로 계산했는데, 추수철이면 법주사 종무소직원들이 스님과 함께 나와 답품을 했다. 답품은 벼 낱알 수를 세어



정이품송.



법주사 앞 관광지주 풍경.

신라의 걸작 쌍사자 석등 (국보 5호)

입 벌린 사자 부처님 말씀 입 다문 사자 부처님 진리 뜻



입을 다문 사자는 참선의 사자 부처님의 진리를 뜻한다. 입을 벌린 사자와 다른 사자를 아연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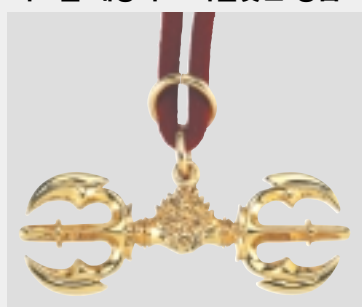
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오는 것처럼 입을 벌린 사자는 출생의 의미이고, 입을 다문 사자는 죽음을 의미한다. 상대석에 연꽃이 피어있다. 그 위에는 오직 부처님 밖에 올 수가 없다. 부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예전에는 24시간 관솔물을 댔다. 그래서 석등 창 밖에 검은 그늘음이 있어 있다. 그 빛은 부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팔각 옥제석에 세 개의 태를 두르고 다시 팔각을 댔다. 천장에 사각 틀은 정자이다. 우물 정자는 각에 화재 예방의 뜻을 두고 있다. 핸드폰에 우물 정자가 들어가는 것도 화재 예

자연으로 상 차리는 ‘딸 부잣집’

방의 의미가 담겨있다. 사내리 관광지구에 있는 딸 부잣집은 불부처 가을까지 안에서 나는 나뭇잎과 약초를 채취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밥상 위에 올린다. 겨울 장사를 위해 옥화대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자연산 다슬기를 채취하고, 추석 일주일 전부터 능이 버섯과 송이버섯을 채취해 냉동시켜 놓는다. 자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뚫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뚫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삼고금강저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력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 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벨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데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신속에 문의하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발송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송나노 지갑



여성용銀나노 지갑

음마니반메흠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음마니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음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권과 북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십상보명판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 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만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로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음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뚫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 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뚫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상 삼띠,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